

【논문】

## 칸트 ‘초월적 관념론’(Transzendentaler Idealismus)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김재호

【주제분류】 서양근대철학, 형이상학, 인식론

【주요어】 칸트의 초월적 관념론, 유한성의 철학, 무한성의 철학, 스피노자주의, 칸트의 유작, 초월적 관념론의 미래

【요약문】 헤겔의 관념론과 비교하여 칸트의 초월적 관념론은 일반적으로 유한성의 철학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칸트의 초월적 관념론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함으로써 생겨나는 오해일 수 있다. 칸트의 초월적 관념론의 진정한 의미는 비판기라는 시기적 외연에 의해 결정될 수 없고, 그것에 이르게 된 칸트의 문제의식에서 찾아야만 한다. 따라서 칸트가 초월적 관념론이라는 체계에 이르게 된 그의 문제의식이 이를 완성한 비판기뿐 아니라, 또한 이 체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교정하고자 노력한 그의 마지막 노력들 속에서 여전히 발견된다면, 칸트에게서 초월적 관념론의 진정한 의미는 이러한 사유과정의 전체 지평 속에서만 온전히 조망될 수 있을 것이다.

\* 본 논문은 2010년 10월 30일 한국칸트학회와 한국헤겔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학술대회, “칸트 또는 헤겔?: 발전인가 퇴행인가?”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일견 갑작스러워 보이는 논의의 시작은, 당시 본 논문이 칸트의 관념론에 대한 헤겔입장의 평가에 대한 답 논문 형식으로 기획되었기 때문임을 알려드립니다.

## I.

칸트와 헤겔. 서양의 근대를 대표하는 두 철학자의 사상적 우열을 가리려는 것만큼 무모한 일이 또 있을까? 이들 철학이 서양 철학사에서 갖는 의미와 영향력의 지대함이 어찌면 이러한 비교 자체를 허용치 않을 뿐더러, 심지어 불가능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칸트에서 헤겔로 이어지는 시대의 연속성과, 고민하였던 많은 철학적 문제들의 유사성은 이들 철학을 각자의 왕국에만 가두어버릴 수 없게 만든다. 그렇기에 만약 우리가 감히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려고 시도한다면, 이는 하나의 사상이 다른 것에 갖는 우위성이나 완결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그들이 공통으로 씨름하였던 철학적 물음의 내용과 의미를 더 명확히 밝힘으로써 그 철학적 유산을 풍성하게 하기 위함일 것이다.

유한성과 무한성의 관계를 매개로하여 이들 철학을 비교할 때, 아니 더 정확히 말해 헤겔철학의 입장에서 칸트철학을 평가할 때, 대개는 칸트철학의 유한성, 즉 유한한 주체가 무한과 관계 맺음에서 생겨나는 문제점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하다. 다음의 인용문은 칸트 철학에 대한 헤겔의 직접적인 평가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음을 잘 보여준다.

“칸트 철학은 다음과 같이 가장 확정적으로 간주될 수 있다. 칸트 철학은 정신을 의식으로 파악하였고, 그래서 전적으로 단지 현상학[현상]을 규정하는 것들만 포함할 뿐이지 정신의 철학을 규정하는 것을 포함하지 못한다고 말이다. 그것[칸트 철학]은 자아를 피안에 놓여 있는 것과,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규정해서 사물 그 자체라고 불리는 것과의 관계 맺음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칸트 철학은 의지뿐 아니라 지성[예지자]도 오로지 이러한 유한성에 따라서만 파악한다. [...] 피히테의 철학도 이와 동일한 입장에 서 있다. 그래서 내가-아닌 것[비아(非我)]은 단지 나의 대상으로서만, [즉] 단지 의식 속에서만 규정된다. 그것[내가-아닌 것]은 무한한 장애로서, 즉 사물 그 자체로서 남게 된다. 그러므로 이들 두 철학이 보여주는 바는, 이들 철학은 개념들이나 정신에 즉자 대자적으로 있는 방식으로서 이르지 못하고, 오로지 다른

것과의 관계 맺음의 방식으로서만 도달하게 된다는 점이다.”<sup>1)</sup>

이에 앞서 발표된 *Differenzschrift*<sup>2)</sup>에서 발견되는 칸트 철학에 대한 헤겔의 비판 역시, 그 대상이 주로 『판단력비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은 결국 유한성의 철학으로서의 칸트철학의 문제로 환원될 수 있겠다. 여기에 나타난 헤겔의 관점에 따르면, 칸트가 한편으로는 자연(Natur)을 자연의 목적과 관계하여 ‘주관객관’(Subjektobjekt)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물질(Materie)로서 ‘절대적 객관’(absolutes Objekt)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생겨나는 칸트철학의 문제는 결국 이들의 통일의 가능성이 해명되지 않는 한 결국 위와 동일한 문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sup>3)</sup> 따라서 헤겔의 판단에 따르면, 칸트가 『판단력비판』에서 시도한 자연(Natur)과 자유(Freiheit)의 통일은 유한한 인간의 인식주관을—칸트적 표현으로는 ‘추론적 지성’(diskursiver Verstand)을—통해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고, 스스로 주체이면서 동시에 객체인 절대적 주관의 이념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다.<sup>4)</sup> 왜냐하면 ‘지성’과 ‘감성’, ‘개념’과 ‘직관’, ‘분석적

---

1) Hegel, *Enzyklopädie der philosophischen Wissenschaften im Grundrisse*, GW 20, 422쪽 이하.

2) Hegel, *Differenz des Fichteschen und Schellingschen Systems der Philosophie* 1801. 이하 GW 4에서 인용.

3) Hegel, GW 4, 69 이하 참조. 여기서 Hegel은 자연의 필연성과 자유와의 관계가 만들어내는 문제를 중심으로 칸트가 판단력비판에서 ‘목적론적 판단력의 이율배반’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의 근저에 놓여 있는 칸트철학의 근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4) 그렇기에 Hegel은 *Differenzschrift*에서 철학은 자연의 체계와 자유의 체계로 나뉘어져야 할 뿐 아니라, 이들 두 부분 체계들은, 자연과 자유를 자기 자신 속에서 통일하기 위해서 이러한 구분들을 다시 한 번 자기 자신 속에 포함하고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Hegel, GW 4, 72,8-74,9 참조; 특히 72,21-24: “Weil Intelligenz sowohl, als die Natur, dadurch daß sie im Absoluten gesetzt sind, eine reelle Entgegensetzung haben, kommen die ideellen Faktoren der Freyheit und Nothwendigkeit einer jeden zu.”; 또한 73,7-10: “Wenn daher die Wissenschaft der Natur, überhaupt der theoretische Theil, die Wissenschaft der Intelligenz der praktische Theil der Philosophie ist, so hat zugleich jede wieder für sich einen eigenen theoretischen und praktischen Theil.”)

인 것'과 '종합적인 것', 등의 서로 다른 기원과 절대적 구분에 근거한 칸트의 '초월적 관념론'은, 칸트 스스로도 분명 『판단력비판』에서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직관적 지성'(Intuitiver Verstand)과 같은 또 다른 종류의 '지성'(Verstand)이 개입되지 않는 한에서, 특수한 법칙(besondere Gesetze)에 따르는 것으로서의 모든 경험적인 것을 '우리에게 대해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는 자연'<sup>5)</sup> 속에 결코 통합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칸트 철학에 대한 헤겔의-혹은 헤겔의 입장에서부터의 이런 일반적인-평가를 과연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일까? 적어도 필자의 눈에는 헤겔의 이러한 평가가 틀리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헤겔이 여기서 파악한 칸트철학의 문제점은, -칸트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의식하고 있었던 아니든 간에-칸트가 자신의 비판철학의 체계를 구성해가는 과정에서 언제나 발목을 잡았던 난제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자면, 헤겔의 이러한 평가는 칸트 철학에 대한 온전한 평가로 보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 II.

한 철학자에 대한 정당한 평가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니 가능하기는 한 것일까? 한 철학자의 사상이 비록 하나의 완결된 체계를 추구하며 그 완성을 시도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상적 전개과정이 스스로 제시한 이론들의 내적 문제에 대한 자기반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끝없는 변신의 과정이었다면, 이러한 사유의 연속된 발전

---

5) AA V 413: "Wie also nach demselben[sc. das Übersinnliche], als Prinzip, die Natur (nach ihren besondern Gesetzen) für uns ein System ausmacht, welches sowohl nach dem Prinzip der Erzeugung von physischen als dem der Endursachen als möglich erkannt werden können: läßt sich keineswegs erklären; [...]"

과정 속에서 하나의 단계만을 화석화하여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과연 그의 철학에 대한 정당한 평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러한 문제의식은 칸트 철학에 가해지는 세간의 일반적 평가를—앞서 언급한 헤겔의 평가를 포함하여—분명 다시금 생각해보게 만든다.

흔히 비판철학으로 대변되는 칸트 철학은, 그의 철학적 작업의 전 역사를 고려할 때 확실히 특정한 시기의 사상에 제한되어 이해되고 있음이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칸트 비판철학의 대표적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그의 '초월적 관념론'은 그의 삼대 비판서시기의 철학적 이론들을, 그러니까 그의 주저로 알려진 『순수이성비판』 초판이 출간된 1781년부터 마지막 비판서인 『판단력비판』이 나온 1790년까지의 사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인식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음은, 칸트가 이 시기에 자신의 '초월적 관념론'을 가장 온전한 형태로 제시하였고, 또 이로부터 자신의 철학적 체계를 구성하려고 시도하였음 또한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칸트의 '초월적 관념론'을 이들 시기에만 제한해서 해석하거나 재구성하는 일은, 이러한 이론에 이르게 된 칸트의 철학적 문제의식의 기원과 과정은 생략한 채 그 결과만을 주목함으로써, 칸트에게서 '초월적 관념론'이 갖는 진정한 의미를 온전히 드러내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해석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칸트에게서 '초월적 관념론'을 둘러싼 문제의식은 이들 비판기 시절에만 국한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칸트가 '초월적 관념론'의 체계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그의 많은 철학적 반성들과, 또한 이렇게 형성된 비판철학의 체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교정하고자 노력하였던 그의 마지막 노력들까지도,—비록 이들이 소위 정통적인 '초월적 관념론'의 생각과 충돌을 일으키거나 온전히 조화될 수 없다 하더라도—여전히 칸트의 고유한 철학적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면, 칸트에게서 '초월적 관념론'의 진정한 의미는 이러한 사유과정의 전체 지평 속에서만 온전히 조망될 수 있을 것이다.

## III.

“셸링, 스피노자, 리히텐베르크 등에 의한 초월적 관념론의 체계, 말하자면 세 개의 차원: [초월적 관념론 체계의] 현재, 과거 그리고 미래”<sup>6)</sup>

이 인용문은 칸트의 마지막 작품을 위한 예비 작업들에 해당하는『유작』(Opus postumum)<sup>7)</sup>의 한 구절이다. 합본(Konvolut) I에 보관되어 전해진 이 구절은 그 작성연대가 1800년 12월 이후로 추정되는, 그러니까 칸트의 철학적 작업의 역사에서는 가장 후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애 말년 칸트의 육체적 정신적 상태의 문제점을 들어 이 시기 칸트 사유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 일부의 견해들을 고려해 볼 때,<sup>8)</sup>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초월적 관념론에 대한 칸트의 생각은 이들의 의심을 정당화시키고도 남을 만큼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

칸트는 여기서 자신의 비판철학이 이루고자 하였던 ‘초월적 관념론’의 체계의 대표자를 셸링(Schelling), 스피노자(Spinoza), 그리고 리

6) AA XXI 87,29-31: “System des transzendentalen Idealismus durch Schelling, Spinoza, Lichtenberg etc., gleichsam drei Dimension: die Gegenwart, Vergangenheit und Zukunft.”

7) 이하 Op로 표기.

8) Op의 작업, 특별히 가장 마지막 시기에 이루어진 합본(Konvolut) VII과 I에서의 칸트의 작업을 그의 “노쇠함”과 연결시켜 해석하려는 견해는 칸트 Op 해석의 역사에서 일관되게 발견된다.(E. Förster “Introduction” In: Opus postumum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xliii쪽; J. Edwards, “Spinozism, Freedom, and Transcendental Dynamics in Kant’s Final System of Transcendental Idealism”, 70쪽 각주 70참조 In: The Reception of Kant’s Critical Philosophy, ed. by Sally Sedgwic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pp 54-77.)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필자가 보기에는 몇 가지 문헌학적인 증거에 의해 충분히 반박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는, Garve에게 보낸 1798년 9월 21일자 편지에서 언급한 칸트의 건강상태의 신빙성에 관한 것과(AA XII 257쪽; 258쪽 참조), 칸트의 마지막 시기를 곁에서 끝까지 지켰던 Wasianski가 자신의 전기에서 칸트의 건강상태를 설명한 구절들이다.(Wasianski, Immanuel Kant in seinem letzten Lebensjahren, Königsberg 1804, In: *Immanuel Kant: sein Leben in Darstellungen von Zeitgenossen*, hrsg. von Felix Gross, Darmstadt 1993, 260쪽 참조)

히텐베르크(Lichtenberg)에게서 찾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철학 체계를 각각 '초월적 관념론'의 미래와 과거, 그리고 현재로 언급하고 있다.<sup>9)</sup>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초월적 관념론'에 대한 칸트의 이러한 평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칸트가 진정 '초월적 관념론'의 미래의 모습을 셸링의 철학에서 찾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이론의 완성을 기대함으로써 스스로 '사변적 관념론'(spekulativer Idealismus)을 '초월적 관념론'의 합법적인 상속자로 인정하고 있는 것일까?<sup>10)</sup> 더 혼란스러운 것은, 정말 칸트가 이전까지 명백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했던 스피노자의 철학을 '초월적 관념론'의 원형으로 여기고 있으며, 심지어 '초월적 관념론'이 스피노자주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sup>11)</sup>

후기 Op에서 발견되는 '초월적 관념론'에 대한 이러한 근본적인(radikal) 문제제기는, 단순히 노년의 칸트에게서 발견되는 흥미로운 구절로 치부할 수만은 없는 종류의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문제제기에서 '초월적 관념론'을 둘러싼 오랜 철학적 반성과과정에서 칸트가 필연적으로 이르게 된 사유의 종착점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sup>12)</sup> 그렇기에 여기서 우리를 당혹시키고 있는 칸트의 이러한 철학적 반성들의 총체는, 어쩌면 칸트가 이루고자 했던, 그럼에도 그

---

9) 물론 칸트가 여기서 Schelling의 철학을 초월적 관념론 체계의 현재로, Lichtenberg의 철학을 미래로 표현한 것은 단순한 착오로 보인다. 필자가 보기에는 적어도 Op 합본 VII과 I의 맥락에서 이러한 칸트의 착오를 의도적인 것으로 설명할 구절들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10) Tuschling, "Die Idee des transzendentalen Idealismus im späten Opus postumum"(In: *Von Übergang-Untersuchungen zum Spätwerk Immanuel Kants*, 1991, 105-145) 115쪽 참조.

11) 이러한 칸트의 생각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표현으로는 다음 구절을 참조하라.: "Der transzendente Idealismus ist der Spinozismus, in dem Inbegriff seiner eigenen Vorstellungen das Object zu setzen. Von Spinozens Idee, alle Gegenstände in Gott anzuschauen, [...]"(XXII 64).

12) 후기 Op에 등장하는 초월적 관념론을 둘러싼 이 문제는 지금까지 Op의 해석에서 그 중요성에 비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 문제가 칸트 초월철학에서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촉발한 것은, 필자의 판단에 따르면 Tuschling(1991년)의 논문이 처음이었으며, Edward의 연구(2000년)는 이러한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이행 1-14'(Übergang 1-14)에 등장하는 '에테르연역'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의 생전에 완성하지 못했던 ‘초월적 관념론’의 미래의 모습 그 자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칸트 초월철학의 어떤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이와 같은 미래로 이끈 것일까?

#### IV.

자신의 제자였던 헤르츠(M. Herz)에게 보낸 칸트의 1772년 2월 21자 편지는 흔히 칸트 초월철학(transzendente Philosophie)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 잘 알려져 있다. 이 편지에서 우리는 칸트가 『순수이성비판』에서 본격적으로 그 해결을 위해 씨름한 초월철학의 근본문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편지에서 칸트는, ‘우리 속에서 표상이라 불리는 것이 대상과 관계 맺는 것은 무엇에 근거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이것이 비록 이전의 형이상학적 연구들이 소홀이 했던 질문이지만 이에 답하는 것이 형이상학의 전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이 구상하는 ‘초월적 관념론’이 어떠한 이론이어야 함과 그것이 갖는 의미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sup>13)</sup> 또한 칸트는 이 편지에서 자신이 여기서 제기한 초월철학의 근본문제가 1770년 교수취임논문의 문제점으로부터 생겨났음을 언급함으로써 ‘초월적 관념론’의 문제의식이 교수취임논문의 그것과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sup>14)</sup>

---

13) AA X 130: “[...], so bemerkte ich: daß mir noch etwas wesentliches mangle, welches ich bey meinen langen metaphysischen Untersuchungen, sowie andere, aus der Acht gelassen hatte und welches in der That den Schlüssel zu dem ganzen Geheimnisse, der bis dahin sich selbst noch verborgenen Metaphysik ausmacht. Ich frug mich nemlich selbst: auf welchem Grunde beruhet die Beziehung desjenigen, was man in uns Vorstellung nennt, auf den Gegenstand?”

14) 당초 교수취임논문의 내용을 수정 보충하여 ‘감성과 이성의 한계’(Die Grenzen der Sinnlichkeit und der Verstand)라는 제목으로 출판하려고 계획했던 칸트는 이 논문의 중요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자신의 생각의 변화와 앞으로의 계획을 이 편지에서 알리고 있다. AA X 129 이하 참조.



‘초월적 관념론’으로의 전개과정과 관련하여 칸트의 1770년 교수취임논문, “감성 세계와 지성 세계의 형식과 원리들에 관하여”(De mundi sensibilis atque intelligibilis forma et principiis; AA II 385-419)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유의 핵심은 ‘감성적인 것’과 ‘지성적인 것’의 구별이다.<sup>15)</sup> 인식능력으로서의 감성과 지성, 감성적 인식과 지성적 인식의 구별, 그리고 이로부터 생겨나는 감성세계와 지성세계의 구별은, 칸트로 하여금 이전까지 그의 사고가 의존해 있던 형이상학적 독단론자들과의 결별을 비로소 가능하게 해 주었다. 우연적인 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단지 인간의 유한성으로 탓으로 돌림으로써 모든 종합적인 것을 분석적인 것으로 환원하여버렸던 형이상학적 독단론의 체계는, 칸트의 판단에 따르면 “감성적인 것을 혼란되게 인식된 것으로, 지성적인 것을 명확하게 인식된 것으로 설명하는”<sup>16)</sup> 잘못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들 두 가지 상이한 인식의 구별은 단지 ‘논리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없고, 하나의 것이 다른 것으로 결코 환원될 수 없는 실제적인 것이어야 한다.<sup>17)</sup>

이들 인식의 명백한 구별과 더불어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칸트가 인간에게서의 지성능력의 유한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칸트에 따르면, 우리 인간의 지성적 인식은 개념을 통한 ‘추론적’ 인식이지, 결코 대상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직관적’ 인식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자체로 있는 지성적인 것들에 대해서 인식한다면, 그것은 직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상징적 인식’에 의한 것일 뿐이다.<sup>18)</sup> 따라서 칸트가 여기에서 사물 그 자체에 대한 인식의 가능

15) 이들 양자에 대한 구별이 그가 이전의 형이상학적 작업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대한 빛”(großes Licht)(AA XVIII 69)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 1769년의 깨달음의 내용이었음은 명백해 보인다.(최소인, 『감성계와 지성계의 형식과 원리들』 해제’ 216쪽 참조. In: 칸트, 『감성계와 지성계의 형식과 원리들』, 최소인 옮김, 2007, 210-234쪽.)

16) 칸트, 『감성계와 지성계의 형식과 원리들』, 최소인 옮김, 2007, 26쪽.

17) 『순수이성비판』에서도 칸트의 이러한 생각은 동일하게 발견된다.: “Der Unterschied einer undeutlichen von der deutlichen Vorstellung ist bloß logisch, und betrifft nicht den Inhalt”(A43/B61)

18) 칸트, 『감성계와 지성계의 형식과 원리들』, 28쪽 이하.

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결코 독단적 형이상학의 방식에서가 아닌, 분명한 한계를 지닌 유한한 인간 지성의 인식방식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sup>19)</sup>

여기서 드러난 이상의 두 가지 사상은 이후에 등장할 ‘초월적 관념론’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 구성요소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초월적 관념론’의 험난한 운명은 이미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감성과 지성, 경험적인 것과 선형적인 것, 따라서 종합적인 것과 분석적인 것의 분명한 경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험적인 것을 선형적인 체계 속에 통합하고자 하는 ‘초월적 관념론’에게 남은 것은, 필연적인 진리와 우연적인 진리의 대립이 그에게는 존재하지 않거나 단지 명확함의 차이일 뿐인 그러한 ‘신적 정신’(der göttliche Geist)<sup>20)</sup>이 아니라, 오로지 유한한 인간의 ‘추론적 지성’ 뿐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1770년의 교수취임논문은 칸트가 ‘초월적 관념론’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걸어야 했던 길이지만, 동시에 이제 등장하게 될 ‘초월적 관념론’의 현재를 비춰주는 가장 투명한 과거의 거울이라 할 수 있겠다.<sup>21)</sup>

---

19) 지성적 인식에 대한 칸트의 이러한 이중적 태도를 교수취임논문 내에서 명확히 규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최소인 2007, 227쪽 이하를 참조하라.

20) Tuschling, “Intuitiver Verstand, absolute Identität, Idee. Thesen zu Hegels früherer Rezeption der ‘Kritik der Urteilskraft’” 175쪽. In: *Hegel und die “Kritik der Urteilskraft”*, hrsg. von Hans-Friedrich Fulda, Rolf-Peter Horstmann, Klett-Cotta 1990, pp. 174-188.

21) 칸트 초월철학의 발전과정에서 과거의 유산을 1770년 교수취임논문으로 제한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라이프니츠 철학에 경도되었던 그의 초기 사상들을 포함하여 칸트의 전 비판기 사상들의 연관성을 완전히 배제하고는 결코 그의 초월철학의 전개과정을 분명히 드러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초월적 관념론의 형성과정과의 가장 직접적인 연관성으로 인해 여기서는 논의를 교수취임논문에만 한정하고자 한다.

## V.

칸트는 앞서의 교수취임논문에서 자신을 이전의 형이상학과 구별 짓게 하는 새로운 '공간'과 '시간'이론을 발표하였다. 여기에 나타난 칸트의 생각에 따르면, 공간과 시간은 '사물들에 관한 우리의 직관의 형식'이지 '사물들 그 자체의 형식'이 아니다. 따라서 시간, 공간 중에 주어지는 사물, 즉 시간, 공간에 따라 질서 지워지는 사물들은 단지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Erscheinung)일 뿐이지 우리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존재하는 사물이 아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 칸트는 전통적인 '실재론'이나 '회의론'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관념론'으로 가게 되는 실마리를 찾게 된다.<sup>22)</sup>

이처럼 '공간'과 '시간'을 더 이상 우리 밖의 사물들의 속성이 아니라 대상을 인식하는 우리 인식 능력의 형식으로 간주하는 이론은, 결국 공간과 시간, 그리고 그 중에 주어지는 대상을 단지 '현상'일 뿐 그 자체로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준다는 점에서 분명 '관념론'(Idealismus)인 것이다. 하지만 교수취임논문에서 이미 발견되는 칸트의 이러한 '관념론'은 그가 앞서 언급한 편지에서 초월철학의 근본문제로 간주한 문제의식으로 인해 '초월적 관념론'으로 변화해야만 했다. 즉 이제 칸트가 전통적 형이상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상한 이론은, '그 자체로 있는'(an sich) 사물에 관해서가 아니라 단지 '우리에게 있어'(für sich) 사물인 것, 즉 우리의 표상과 현상에 관해서만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분명 '관념론'이지만, 이 이론이 우리의 표상이 그 대상과 선험적으로 맺는 관계의 근거에 관해 다룬다는 점에서 '초월적'(transzendental)<sup>23)</sup>이어야만 했다. 따라서 '초월적 관념론'

22) 김재호, "칸트에 전해진 버클리의 유산"(2005년 『철학연구』 70집) 37쪽.

23)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에서 처음으로 '초월적'(transzendenta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대상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대상들을 인식하는 우리의 인식방식 일반을-이것이 선험적으로 가능한 한에서-다루는 모든 인식"(B25)을 '초월적'이라고 부른다. 또한 A56/B80이하에 나타난 칸트의 생각에 따르면, 만약 우리가, 우리의 표상들, 즉 직관과 개념들이 단지 선험적으로 사용된다(혹은 적용된다)는 사실과 또 어떻게 그렇게 사용될 수 있

은 우리의 표상이 자신의 대상 일반과, 다시 말해 ‘객관성[대상성]’ (Objektivität)과 선험적으로 관계 맺음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관한 이론이어야만 했다.

칸트가 이제 『순수이성비판』에서 구상하는 ‘초월적 관념론’은 먼저 공간과 시간이 선험적으로, 즉 필연적으로 대상들과 관계 맺는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왜냐하면, ‘초월적 관념론’은 일차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표상이 선험적으로 직관의 대상들과 관계 맺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월적 관념론’은 직관의 형식 혹은 순수 직관으로서의 시간과 공간의 이론인 ‘초월적 감성론’(transzendente Ästhetik)을 자신의 체계 속에 필연적으로 포함한다.

또한 ‘초월적 관념론’은 대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식 뿐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대상 일반에 관해 사고하는 방식에 관한 것도 포함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초월철학의 근본물음을 제기한 앞서의 1772년 편지에서, 우리의 표상이 대상과 관계 맺는 것의 근본특징은 대상을 직관하는 형식들인 시간과 공간에 관계될 뿐 아니라, 대상 일반에 관해 사고하는 개념들에 관한 것 역시 포함한다는 점을 칸트는 분명히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sup>24)</sup> 따라서 ‘초월적 관념론’은 사고의 형식들, 즉 개념(Begriffe)과 판단(Urteile) 그리고 추론(Schlüsse)들이 그들의 대상과 관계 맺는 것에 관해 다루는 부분인 ‘초월논리학’(transzendente Logik)도 자신의 체계 속에 포함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 ‘초월논리학’은 한편으로는 ‘진리의 논리학’(Logik der Wahrheit)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상의 논리학’(Logik des

---

는지를 인식할 수 있을 때, 그러한 인식은 ‘초월적 인식’이다. 또한 직관과 개념이라는 우리의 표상들이 선험적으로 생겨날 수 있다는 사실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우리가 인식하는 한에서 그 인식을 초월적 인식이라고 말한다. 결국 여기서 말하고 있는 초월적 인식의 두 가지 내용, 즉 ‘인식의 선험적 가능성’(die Möglichkeit der Erkenntnis a priori)과 ‘인식의 선험적 사용’(der Gebrauch der Erkenntnis a priori)은 결국 하나의 질문, 즉 ‘선험적으로 성립되는 표상이 어떻게 경험에서 생겨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적 대상과 관계 맺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환원되어 진다.(김재호 2005년 38-39쪽 각주 44 참조.)

24) AA X 130이하.

Scheins)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즉 진리가 우리의 인식과 대상과의 일치를 의미하는 한에서,<sup>25)</sup> 대상과 선험적으로(a priori) 관계 맺는 개념과 판단에 관한 이론, 그러니까 그 아래에서만 우리의 인식 일반이 객관과 관계 맺는 조건들에 관한 이론인 '초월적 분석론'(transzendentaler Analytik)은 '진리의 논리학'으로 여겨진다. 반면에 대상 일반과 선험적으로 관계 맺지 않는 순수 이성의 추론들에 관한 '초월적 변증론'(transzendentaler Dialektik)은 단지 가상적 인식만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가상의 논리학'인 것이다.

## VI.

초월철학의 근본물음에 답하기 위해 칸트가 제시한 이론들은 이제 이들을—'초월적 감성론', 그리고 진리의 논리학과 가상의 논리학을 동시에 포함하는 '초월논리학'—포괄하는 하나의 '체계'(System)로서의 '초월적 관념론'을 형성하게 된다. 체계로서의 '초월적 관념론'은, 이들 이론들을 단지 외적으로 모아 놓은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서로가 그것과 유기적으로 관계 맺을 수 있는 전체라는 하나의 이념으로 통일되어야만 한다. 그렇다면 이들 '초월적 관념론'을 이루고 있는 부분들의 필연적인 연관관계를 설정해 주고 그것에 체계적 통일성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초월적 관념론'에 이르게 했던 초월철학의 근본물음에 대한 칸트의 해답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제 남은 의문은, 칸트가 찾아낸 문제해결의 열쇠는 무엇이며, 그것이 과연 '초월적 관념론'의 체계를 어떻게 완성해 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기억하듯이, 초월철학의 근본물음은 '우리 속에 있는 표상이 그것의 대상과 관계 맺는 것의 근거'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칸

---

25) 엄밀히 말하자면 '진리'(Wahrheit)에 관한 칸트적 의미는 인식과 대상의 관계 맺음에서 성립한다. A57/B82이하 참조.

트에 따르면 이 관계 맺음의 일차적 근거는, 인식주관으로서의 우리가, 그 속에서 대상을 공간 시간적으로 표상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사물들을 공간과 시간 중에 있는 것으로 직관할 수 있는 근본형식을 소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직관 속에 주어지는 다양을 그것을 통해 대상 일반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근본형식으로서의 개념들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식주관의 이러한 순수 형식들의 소유가 대상과의 관계 맺음의 근거를 모두 설명해 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공간과 시간이 어떤 것을 우리 밖에 혹은 내부에 있는 것으로 직관할 수 있게 만드는 경험의 가능성의 조건이 된다는 점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sup>26)</sup> 또 다른 경험의 가능성의 조건인 범주가 대상과 맺는 관계, 즉 범주의 객관적 타당성을 해명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sup>27)</sup> 이러한 문제의식이 칸트로 하여금 ‘범주의 초월적 연역’(transzendente Deduktion der Kategorien)을, 즉 우리의 순수 지성개념들이 대상일반과 선형적으로 관계 맺고 있다는 사실과, 어떻게 그러한 관계 맺음이 가능한지에 관한 증명을 시도하게 만든 것이다.

이러한 ‘범주의 초월적 연역’을 통해 칸트는 ‘자기의식’, 즉 ‘통각의 근원적이고 종합적인 통일’을 모든 사유와 인식 뿐 아니라, ‘객관

26) “우리는 앞에서 공간과 시간 개념에 대해서, 이것들이 선형적인 인식으로서 그럼에도 어떻게 대상들과 관계를 맺어야만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모든 경험에 독립해서 대상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가를 가버울 수고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었다. 감성의 그러한 순수 형식들에 의해서만 하나의 대상은 현상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경험적 직관의 객관일 수 있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은 현상으로서의 대상을 가능하게 하는 선형적인 조건을 함유하는 순수 직관이고, 이 아래에서 종합은 객관적 타당성을 가지니 말이다.”(B121이하)

27) “이에 반해서, 지성의 범주들은 대상이 직관에 주어지는 조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물론 대상들은 지성의 기능과 반드시 관계 맺지 않고도, 말하자면 지성이 그것들의 선형적인 조건을 함유함이 없이도 현상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감성의 분야에서 부딪치지 않았던 어려운 문제가 등장한다. 곧, 어떻게 사고의 주관적 조건들이 객관적 타당성을 가질 것인가, 다시 말해 어떻게 대상에 대한 모든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을 제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등장한다. 왜냐하면 두 말할 것 없이 현상들은 지성의 기능 없이도 직관에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B122)

성'(Objektivität)의 최상 근거로 제시한다. 즉 모든 인식의 통일성의 최상 근거로서의 통각은, 동시에 객관성으로서 혹은 현상으로서의 존재의 통일성의 근거이기도 한 것이다. 이로써 우리 속의 표상이 대상과 관계 맺음의 근거는 비로소 해명되어 질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관계 맺음의 근거는, 마치 대상을 산출하는 신적 직관 속에서 인식과 대상의 통일이 근원적으로 이루어지듯, 우리의 인식 주관이 자신의 직관의 형식과 사유의 형식을 통해 우리에게 대상으로 될 수 있는 모든 것의 '객관성'을 스스로 만들어냄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다.<sup>28)</sup>

칸트는 이제 우리 인식 활동에 통일성을 부여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경험적 다양을 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게 해 주는 이러한 주체의 활동을 '초월적 관념론'의 최상의 원리로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칸트는, “그렇기에 통각의 종합적 통일은, 우리가 모든 지성사용과 전체 논리학조차도, 그리고 이에 따라 초월철학도 거기에 결부시켜야만 하는 최상의 정점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능력이 지성 자체인 것이다.”(B134)라고 선언한다. 따라서 이제 칸트에게서는 우리의 모든 지성사용을 통해, 그러니까 개념과 판단들의 기능을 통해 객관성 혹은 대상성을 산출하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의 사유의 법칙을 자연 속에 '집어넣음으로써'(Hineinlegen)<sup>29)</sup> 자연에 법칙을 선험적으로 지정하는 것, 나아가 우리의 사유를 통해 자연과 세계 자체를 구성함으로써 '초월적 관념론'의 전체 체계를 완성하는 일은 전적으로 이 '최상의 정점'(der höchste Punkt)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찾아낸 이 인식주체의 자발적인 능력을 통해 칸트는 적어

---

28) 이점이 선험적 종합판단의 최상원리가 의미하는 바이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 선험적 종합판단들은 가능하다. 우리가 선험적 직관의 형식적 조건들, 상상력의 종합 및 초월적 통각에서의 저 종합의 필연적 통일을 가능한 경험 인식과 관련시키고, 경험 일반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은 동시에 그 경험의 대상들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이며, 그렇게 한 선험적 판단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갖는다고 말한다면 말이다.”(B197)

29) 칸트가 『순수이성비판』 재판(1787년)의 서문(Vorrede)에서 밝히고 있는, 그러니까 형이상학이 학문의 안전한 길을 가기 위해 요구되었던 코페르니쿠스적 '사유방식의 전회'(Umänderung der Denkart)의 핵심은 바로 주체의 이러한 자발적인 행위에 있었다.(BVII이하 참조)

도 자신을 초월적 관념론으로 이끌었던 근본 물음에 대해 답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표상들이 대상과 선험적으로 관계 맺음의 근거는, 인식하는 주체가 대상을 직관하는 형식으로서의 공간, 시간을 자신 속에서 발견할 뿐 아니라, 공간과 시간 중에 주어지는 다양을 대상의 세계로 생각할 수 있도록 결합하는 범주들을 소유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 결합이 그 속에서 실제로 가능하고 생겨나는 하나의 근원적이고 종합적인 자기의식의 활동을 통해, 그러니까 결합의 근본형식에 따라 대상을 결합하고 규정함으로써, 객관성 일반을—비록 사물 그 자체의 객관성은 아니지만, 적어도 대자적으로(für sich) 인식하는 주체에 대한 객관성을—근원적으로 산출한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명백히 발견되는 주체의 제한성, 즉 주체는 ‘현존의 측면에서’(dem Dasein nach)에서는 결코 객관성을 산출하지 못한다는 제한성은 ‘초월적 관념론’의 체계 완성에 걸림돌로 남게 된다. ‘초월적 관념론’이 의미하는 바가 결국 우리에게 드러나는—혹은 우리에게 의해 구성되는—현상에 제한된다면, 따라서 현상은 우리표상에 대해서만, 즉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대해서만 대상이라면, 우리에게 인식되지 않는 저 현상의 기체(Substrat)인 사물 그 자체는 여전히 숨겨진 채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범주를 통해서는 결코 선험적으로 규정될 수 없는 세계, 그러나 그 세계조차 포괄하는 하나의 통일된 체계로서의 ‘초월적 관념론’의 이념은 적어도 아직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범주들을 통한 객관적 규정들 외에도, 감성과 지각의 거대한 경험의 왕국, 절대적 후험성은 남게 된다. [...]”<sup>30)</sup>, 라는 훗날 헤겔의 평가는 이러한 ‘초월적 관념론’의 암울한 현재를 보여주는 초상이자, 동시에 미래의 예언이기도 하다. 이제 도래할 관념론의 미래는 바로 이와 씨름한 ‘초월적 관념론’의 또 다른 모습이기 때문이다.

30) Hegel, GW 4, 6: “[...]: -es bleibt ausser den objektiven Bestimmungen durch die Kategorieen ein ungeheueres empirisches Reich der Sinnlichkeit und Wahrnehmung, eine absolute Aposteriorität, für welche keine Apriorität als nur eine subjektive Maxime der reflektirenden Urtheilskraft aufgezeigt ist, [...]”



## VII.

칸트는 후기 Op의 시기에 이르러 '초월적 관념론'의 문제에 새롭게 주목하고 있다. 이는 어쩌면 그가 마지막 작품을—비록 생전에 출간되지는 못하였지만 자신의 철학체계에 가장 중요한 작품으로 여겼던 것으로 보이는<sup>31)</sup>—준비하면서 줄곧 인식하고 있던 초월철학의 근본문제, 즉 '비판철학 체계의 갈라진 틈(Lücke)'<sup>32)</sup>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연대기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해당하는 합본(Konvolut) VII과 I에는 '자기정립이론'(Selbstsetzungslehre)<sup>33)</sup>과 함께 '초월적 관념론'에 대한 칸트의 다양한 논의가 등장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의 논의들은 하나의 이론으로서의 제시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들 논의의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칸트가 앞선 Op들에서 행한 작업들의 결과와, 이들 문제들이 칸트의 초월철학에서 갖는 문제의 지평이 동시에 해명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이들 논의에서 발견되는 '초월적 관념론'의 변화된 모습과, 그 속에 담겨진 칸트의 문제의식을 확인하는 일이다.

Op의 마지막 합본들(VII과 I)에서 우리는 도무지 비판철학의 체계와는 조화될 수 없을 것 같은 '초월적 관념론'의 모습들을 만나게 된다. 이러한 모습은 앞서 인용한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칸트가 자신의 관념론을 스피노자의 철학과 연관시키는 것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

31) 마지막 작품에 대한 칸트의 계획과 그것의 중요성에 대한 그의 인식에 관해서는 김재호, “칸트 『유작』(Opus postumum)에 대한 이해와 오해”(2006년 『철학연구』 75집) 317-320쪽 참조

32) Chr. Garve에게 보낸 1798년 9월 21일자 편지 참조: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과제는 '자연과학의 형이상학적 기초로부터 물리학으로의 이행'과 관련된 것이다. 이 과제는 해결되어질 것이다. 만약 해결되지 못한다면 비판철학의 체계에 하나의 빈틈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이성의 요구들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AA XII 257쪽)

33) Op에 나타난 칸트의 '자기정립이론'의 내용과 의미에 관해서는 김상봉, “어떤 의미에서 생각과 있음은 나 속에서 하나인가?—칸트의 『최후유고』(Opus postumum)에서의 '자기정립'(Selbstsetzung)의 개념에 대하여”(『현상과 인식』 제17권, 1993, 89-114)를 참조하라.

[1] “신과 세계 이 양자는 최고자이다. 자기 자신을 사유하는 주관의 관념성은 자기 자신을 하나의 인격으로 만든다. 그것의 신성. 나는 최상의 존재 속에 있다. 나는 나 자신을 (스피노자에 따라), 내 속에서 법칙을 부여하는 신 안에서 본다[직관한다].”(AA XXII 54,5-8)

[2] “-모든 사물들을 신 안에서 직관하는 체계. 리히텐베르크의 스피노자를 참조하라. 초월적 관념론 종합적이고 선형적으로 자기 자신을.”(AA XXII 55,1-3)

[3] “스피노자: 우리가 모든 대상들을 신 안에서 직관한다는 것, 그것도 형식적 통일성의 원리에 따라서”(AA XXII 61,2-3)

[4] “초월적 관념론은, 자신에게 속하는 표상들의 총체 속에서 객관을 정립하는 스피노자주의이다.

모든 대상들을 신 안에서 직관하는 스피노자 사상에 관하여. [그것은] 모든 개념들을, [그러니까] 하나의 체계 안에서 인식의 형식[형식적 규정]을, 즉 근본개념들을 구성하게 되는 개념들을, 하나의 원리 아래에서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AA XXII 64,6-11)

[5] “우리의 지성 자체가 창시자가 되는 그러한 것의 초월적 관념론. 스피노자.-모든 것을 신 안에서 직관하는 것.”(AA XXI 15,6-7)

[6] “이성은, 자신의 형식들의 설계를 가지고 앞서 간다(forma dat esse rei), 왜냐하면 그것만이 필연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스피노자. 이들을 통한 인식의 요소들과 주관의 규정하는 계기들. (신 안에서 모든 것을 직관함)”(AA XXI 15,19-22)

[7] “[초월철학은], (순수 이성의 창작인) 이념들의 체계의 수용[동화]이다. 이 이념들을 통해 주관은 자기 자신을 하나의 원리에 따르는 사유의 객관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개념을 통한 선형적인 종합적 통일성을 정초한다. 그것은 첫 번째로 내 속에 있는 인격성이라는 형식의 원리이고, 두 번째로 나 바깥에 있는 세계를 기술하는 것, 즉 세계이론의 원리이고, 세 번째로 (스피노자에 따라), (경험의 원리에 대립해서) 내 속에 있는 것으로 그리고 이를 통해 나 바깥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존재들의 체계의 원리이다.”(AA XXI 101,5-12)

[8] “셸링, 스피노자, 리히텐베르크 등에 의한 초월적 관념론의 체계, 말하자면 세 개의 차원: [초월적 관념론 체계의] 현재, 과거 그리고 미래”(AA XXI 87,29-31)

‘초월적 관념론’과 관련하여 Op의 마지막 합본들에 등장하는 이와 같은 구절들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앞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여기에서 많은 종류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의문에 답하는 일은 연관된-합본 VII과 I 뿐 아니라

이전 Op의 텍스트를 포함하여—텍스트들에 관한 상세한 고찰뿐 아니라, 당시 Op의 작성과 관련된 칸트의 정황—특히 리히텐베르크의 스피노자 해석과 셸링 철학에 대한 칸트의 인식 등을 포함하여—에 대한 문헌학적 연구가 동반되어야 한다. 다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에 주목함으로써, 이러한 변화된 '초월적 관념론'에 이르게 된 칸트의 문제의식의 한 줄기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초월적 관념론'과 스피노자주의와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 VIII.

Op의 마지막 합본들에서 발견되는 초월철학에 대한 칸트의 근본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침묵으로 이 문제를 피해가지 않는 한,<sup>34)</sup> 칸트 철학 진영에서 가능한 해석의 경향은 초월철학의 연속성 속에서 그 근본체계의 틀을 깨지 않은 채 이를 포섭하려는 시도이다.<sup>35)</sup> 그러나 이곳에서 발견되는 많은 이론적 내용들은, —예컨대 합본 VII 이후의 자기정립이론에서 발견되는 '자기의식', '근원적인 순수직관', 이와 연관된 '공간과 시간', '사물 그 자체' 등에 관한 것 뿐 아니라, '이행 1-14'(Übergang 1-14) 이후 명백히 등장하는 운동하는 근원적 힘으로서 모든 것에 편재해 있는 '에테르'(Äther)의 초월적 기능에 관한 언급들을 포함하여—명백히 지금까지의 '초월적 관념론'의 이론 내에서 쉽게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칸트의 '초월적 관

34) 예컨대 Adickes 1920, 33쪽 각주(Tuschling 1991, 114쪽 참조)

35) 대표적으로는 초월철학의 체계의 틀 안에서 Op를 해석하려고 시도한 Mathieu를 들 수 있겠다: "Op에 대한 주의 깊은 연구와 비교에 따르면 내 생각에는, Op가 비판철학에 속한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칸트가 독단론적 철학으로 되돌아가 버렸다가나 혹은 그가 초기 낭만주의 철학자들과 경쟁에서 하나의 작품을 써 보려고 시도하였다는 생각은 더 이상 견지될 수가 없다."(Mathieu, *Kants Opus postumum*, Frankfurt a. M. 1989, 274쪽.)

념론'이 어떻게 스피노자주의로 해석될 수 있단 말인가?

스피노자철학에 대한 칸트의 경계는 '초월적 관념론' 사상이 막 싹 트기 시작했던 교수취임논문에서도 이미 확인된다. 교수취임논문에서 칸트가 형이상학의 '절대 필연적인 확실성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해 공간을 '현상들의 전제'로 시간을 '현상들의 영원성'으로 파악할 수 있음을 한편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신 안에서 모든 것들을 직관한다.'<sup>36)</sup>라는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는 모든 실체성이 갖는 상호연관의 통일성 근거를 인간 지성에 근거하여 탐구하려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sup>37)</sup>

이러한 칸트의 입장은 비판기에 들어 더 선명한 모습을 드러낸다. 특별히 『실천이성비판』에서 칸트가 제기한 스피노자철학의 문제점은, 그것이 비판철학의 핵심인 '시간의 관념성'에 배치됨으로써 '자유'의 실재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sup>38)</sup> 칸트의 판단에 따르면 공간과 시간을 인식주관의 형식이 아니라 '사물들 그 자체의 현존에 속하는 규정들'로 간주하는 한에서 인간 행위의 숙명성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sup>39)</sup> 따라서 칸트는 말한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저 관념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단지 스피노자주의만이 남게 된다."(AA V 101-102) 라고. 따라서 시간과 공간을 근원적인 존재자, 즉 모든 유한한 것들의 창조자에게 속하는 본질적 규정으로 파악하는 한에서는, 유한한 주체들의 행위들은 '순전히 근원적 존재자

36) 물론 칸트는 교수취임논문에서 이러한 생각을 말브랑슈(Malebranche)의 것으로 돌리고 있다.(칸트, 『감성계와 지성계의 형식과 원리들』, 최소인역 51쪽)

37) "그럼에도 평범한 지성에 의해 우리에게 허용된 인식의 해안을 따라 항해하는 것이 말브랑슈가 감행했던 것처럼 신비한 탐구의 거센 파도가 치는 바다로 나아가는 것보다는 더 권할 만한 것처럼 보인다."(같은 곳)

38) 이에 관한 논의는 "순수 실천이성이 분석론에 대한 비판적 조명"(Kritische Beleuchtung der Analytik der reinen praktischen Vernunft) 장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AA V 100-102 참조)

39) AA V 101: "그래서 나는, 시간과 공간을 사물들 그 자체의 현존에 속하는 규정들로 볼 것을 여전히 고집하는 이들이 여기서 어떻게 행위의 숙명성을 피하려 할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

가 어느 때 어느 곳에선가 행사한 그 자신의 행위일 따름이고'40), 따라서 칸트가 그리고 있는 인간 행위의 자유, 그러니까 최고 존재자의 인과성과 유한한 주체의 인과성의 구별을 통해 보장하려는 인간 행위의 자유는 더 이상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칸트로 하여금 후기 Op에 이르러 스스로 비판철학의 체계와 명백히 배치되는 입장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스피노자철학을 다시금 주목하게 만든 것일까? 요약해 말하자면, 칸트에게서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그가 후기 Op의 시기에 이르러 갑작스럽게 이전의 형이상학으로 되돌아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41) 스스로 인식하였던 '초월적 관념론'의 내적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비판철학에 대한 그의 문제의식으로 인해 시작된 Op에서의 철학적 반성들로부터, 즉 최초 작업으로 여겨지는 합본 IV의 '초기 낱장문서들'과 '8절지초안'(Oktaventwurf)에서부터 시작된 그의 새로운 물질이론과, 직접적으로는 '이행 1-14'에서 이루어졌던 에테르연역에서 이루어진 반성들로부터 필연적으로 이르게 된 결과라는 것이다.42)

후기 Op에서 칸트의 관심이 스피노자철학 자체의 완결성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일차적으로 이러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즉 칸트는 스피노자철학의 독단적이고 광신적인 문제를 후기 Op에서도 여전히 인식하고 있었고,43) 따라서 칸트의 관심은 그것을 자신의

40) AA V 102.

41) 이것은 칸트가 동시대의 사변적 관념론의 논의에 갑자기 경도된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물론 칸트가 후기 Op의 문제 해결에서 켈링의 철학에 빛을 지고 있음은 명확해 보인다.(Tuschling 1991, 123쪽 이하 참조) 그러나 이것 역시 그의 초월적 관념론의 내적문제로부터 기인한 필연적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2) Edwards는 '이행 1-14'에서 이루어진 에테르연역의 문제점에서 직접적인 원인을 찾고 있다.(Edwards 2000, 56쪽).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식의 기원은 초기 낱장문서에서부터 등장하는 새로운 물질이론의 전개과정 전체의 맥락에서 파악해야 할 것이다.

43) AA XXI 19,114-15: "철학자는 모든 사물들을 신 안에서 직관한다, 라는 스피노자의 신과 인간에 대한 개념은 광신적[공상적]이다."; AA XXI 48, 26-27 "스피노자: 이러한 모든 이념들을 신 안에서 직관하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신 안에서, 광신적[공상적]"; AA XXI 50,13-15 "스피노자.

‘초월적 관념론’의 체계와의 연관성 속에서 조화시키는 것에 있었다.<sup>44)</sup> 그리고 여기서 발견되는 ‘초월적 관념론’과 스피노자철학의 조화의 필요성은 Op에서의 칸트의 문제의식의 발전과정에서만 설명가능하다는 점이, 무엇보다 이러한 해석을 정당화시켜준다.

“인간의 정신은 스피노자의 신이다. (모든 감관대상들의 형식과 관련하여) 그리고 초월적 관념론은 절대적 의미에서의 실재론이다.”  
(XXI 99,20-22)

이 인용문에서 ‘초월적 관념론’은 그가 비판기에 ‘경험적 실재론’으로 표현하였던 그러한 종류의 관념론은 더 이상 아니다. 그리고 ‘초월적 관념론’을 여기에서처럼 ‘절대적 의미에서 실재론’(Realismus in absoluter Bedeutung)으로 해석하는 일은 적어도 정통적인 초월철학의 틀 안에서는 불가능해 보인다. 그럼에도 칸트의 이러한 요구의 필요성은, 그의 ‘초월적 관념론’의 전개과정에서 생겨난 내적 문제들로부터,<sup>45)</sup> 특별히 ‘이행 1-14’(Übergang 1-14)에서 시도되었던 에테르 연역의 결과로부터 필연적으로 요구되었던 것이다. 비판기 초월철학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고유한 경험적인 것’에 대한 선험적 연역을 통해 이르게 된 결과는 요약하자면, 모든 물질의 운동하는 힘들의 근거로서의 에테르는 경험의 통일을 위해 단지 전제될 수만은 없고 실재해야 하며, 동시에 그것이 경험의 가능성의 조건이라는 점

---

모든 사물들과 자신을 신 안에서 직관하는 거대한 이념[은] 초월적이지, 초월적이지도 내재적이고 객관적이지도 않다.”

- 44) AA XXII 59,21-24: “스피노자가 잘못 파악하고 있듯이 우리가 신성 속에서 직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신이라는 개념을 초월철학이라는 우리의 개념에서 순수 직관의 대상들 속으로 전파시키는[퍼트리느] 것이다.”
- 45) Op에서 칸트의 문제의식의 기원을 초월철학의 내적문제들과 관련하여 해명하는 일은 많은 설명을 요할 뿐 아니라, 해석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논란이 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Op의 시발점(Ansatzpunkt) 문제와 관련된 논의에 대해서는, 김재호 “칸트 『유작』(Opus postumum)의 시발점(Ansatzpunkt)-합본(Konvolut) IV의 23개 ‘초기 낱장문서’ 문제를 중심으로”(『철학사상』 37호 2010년, 149-181쪽) 참조.

에서 초월적 기능을 가진다는 점, 그럼에도 여기서 요구되는 통일성은 물질들의 운동하는 힘들의 연속체에 대한 '집합적 통일성'이지 '배분적 통일성'(distributive Einheit)이 아니기에 우리에게는 전체로서의 '하나의 경험'만이 주어질 수 있지 그것의 현존에 대한 경험적 인식은 불가능하다는 점,<sup>46)</sup> 따라서 이 운동하는 힘들의 체계로서의 동역학적 세계는 하나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경험의 주관의 원리와 일치해야 한다는 점이였다. 즉 물질의 객관적 측면은, 이 에테르의 영향 하에 있는 동역학적 세계의 주관적 측면과 동일시되어야 했고,<sup>47)</sup> 이제 칸트에게 남은 과제는 이들의 동일성을 자신의 초월철학의 체계 내에서 증명하는 일이었다.

결국 합본 VII과 I에서 등장하는 자기정립이론과 초월적 관념론에 대한 논의들은, 칸트가 초기 Op에서부터 계속되었던 자연철학적 주제를 버리고 감각스럽게 초월철학의 주제로 돌아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sup>48)</sup> 이들 이론이 에테르연역을 대체해야만 했기 때문이었다. 즉 에테르연역에서 생겨났던 문제로 인해, 그러니까 운동하는 힘들의 체계로서의 동역학적 전체성을 인식의 초월적 조건으로 인정하는 것은 인식주관, 즉 통각의 활동을 모든 인식의 형식과 대상성의

46) AA XXI 559,5-14: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도 증명되지 (그러니까 인식 속에 선험적으로 주어지는) 앎은 모든 곳에 편재하고 모든 것에 침투하는 세계질료의 현존에 관하여. 이와 같은 질료가 모든 외적 경험을 최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저 명제(그와 같은 물질의 현존에 관한)가 그렇다면 선험적으로 정초되어진다는 것은, 종합적이지(확장적이지) 않고 분석적(한갓 논리적/해명적)이어야 하고, 동일성의 원칙에 근거해서만 생각되어야 한다.”

47) AA XXI 601,23-602,9: “주관적으로 고찰하자면, 이제 저 지각들은 물질의 운동하는 힘들의 결과[작용]이고 (즉 경험적 표상으로서) 그리고 그 자체로서는 가능한 경험의 전체통일성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운동하는 힘들의 전체통일성은 객관적으로는 근본질료들의 절대적 전체의 결과[작용]이다. [...] 따라서 [...] 활동하는 힘들의 결과[작용]의 주관적인 면, 즉 지각들의 전체는 동시에 앞서 말한 물질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객관적인 것과 동일한 것이다.”

48) 물론 에테르연역 이후 합본 X/XI에서 칸트는 운동하는 힘들의 연속체가 인식과정에서 갖는 초월적 기능에 주목함으로써 새로운 방식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기는 하다.

근거로 삼았던 ‘초월적 관념론’의 체계를 파괴하는 것이었고, 동시에 ‘초월적 관념론’을 ‘독단적 실재론’으로 변형시키는 것을 의미하였기에,<sup>49)</sup> 이제 칸트는 주체의 자발적 행위에서 모든 인식과 존재성의 근거를 찾았던 ‘초월적 관념론’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 IX.

후기 Op에서 만나게 되는 칸트의 ‘초월적 관념론’은 분명 사변적 관념론과 닮아 있으며<sup>50)</sup>, 또한 칸트가 독단적 형이상학이라고 비판하였던 전통적 이성론에 가까이 다가가 있다. 그렇기에 여기에서 인식 주관은 스스로를 자신에 대한 순수 직관 중에서 ‘객관’(Objekt)으로 정립하거나 구성하는 능력이고,<sup>51)</sup> 따라서 ‘자기의식’은 단지 대상들의 형식적인 통일성만을 제공해주는 통각의 기능에 제한되지 않고, ‘자기직관’(Selbstanschauung)으로 등장한다.<sup>52)</sup> 또한 이러한 주관은 스스로를 자연존재로 구성할 뿐 아니라, 동시에 스스로를 인격(Person)과 신성(Göttlichkeit)으로 구성하는 ‘도덕적-실천적’(moralisch-praktisch) 이성존재이기도 하다.<sup>53)</sup> 이로써 이제 칸트가 초월철학의 체계의 ‘빈틈’(Lücke)으로 인식하였던, 한편으로 선형적인 것으로부터 후험적인 것으로의 이행과, 다른 한편으로 자연과 자유의 세계를 통일하는 과제는, 자기정립의 활동으로서의 인간의 주관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49) Tuschling 1991, 116쪽 참조.

50) 이곳에서 발견되는 자기정립이론과 피히테, 셸링, 헤겔로 이어지는 독일 관념론과 갖는 이론적 연관 관계에 대해서는 최소인, “칸트의 『유작』에 나타난 절대 관념론의 맹아”(서유립연구 1998년 95-130)를 참조하라.

51) AA XXII 12,21-23, AA XXII 86,14-15 등.

52) AA XXII 16,14; AA XXII 22,7; AA XXII 25,3-11; AA XXII 43,8f. 등.

53) AA XXII 49,17-20: “Man muß von der technisch//praktischen zur moralisch//practischen Vernunft, und vom Subjekt als Naturwesen zum Subjekt als Person d. i. als reinem Verstandeswesen Gott, fortschreiten.”; AA XXII 48,18f.; AA XXII 51,11-18; AA XXII 54,5-8 등.



“초월철학은 의식의 행위[활동]이다. 그것을 통해 주관은 자기 자신의 창시자가 되고, 그리고 이를 통해 또한 [주관은] 하나의 체계 안에서, [그러니까] 신 안에서 모든 사물들을 하나의 체계 안에 있는 것으로 질서지우는 [그러한 체계 안에서] 기술적/실천적 그리고 도덕적/실천적 이성의 전체 대상들의 창시자가 되는 것이다. [...] 이론적/실천적 이성은 스스로를 자신의 본성에 맞추어 객관 자체로, 즉 자립적인 이념으로 창조해낸다.—자기 스스로를 대상으로 구성하는 전 포괄적인 이성의 체계—초월철학은 현존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순전히 인간의 정신을 다루는 것이다. 자신의 고유한 사유하는 주관일.”(AA XXI 78,9-19)

이것이 칸트에게는 미완으로 남았던 '초월적 관념론'의 미래다. 어쩌면 이것은 라이프니츠(Leibniz)와 뉴턴(Newton)의 조화를 통해 형이상학과 자연과학을 하나의 유일한 체계 안에서 통일하려던 청년 칸트가 필연적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었던 마지막 종착점일지도 모른다. 비록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통적 '초월적 관념론'은 분명 아니라 하더라도, 이 속에서 우리가 오랜 세월 고민하였던 '초월적 관념론'의 문제의식을 여전히 확인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것이 “칸트가 걸을 수 있고 걸어야만 했던 칸트 사유의 마지막 도정”<sup>54)</sup>이었다면, 여전히 우리는 이를 칸트의 '초월적 관념론'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투 고 일: 2011. 02. 01.  
 심사완료일: 2011. 02. 14.  
 게재확정일: 2011. 02. 14.

김재호  
 서울대학교

54) 최소인 1998, 128쪽.

## 참고문헌

- 김상봉, 「어떤 의미에서 생각과 있음은 나 속에서 하나인가?—칸트의 『최후유고』(Opus postumum)에서의 ‘자기정립’(Selbstsetzung)의 개념에 대하여」, 『현상과 인식』, 1993.
- 김재호, 「칸트에 전해진 버클리의 유산」, 『철학연구』 70집, 2005.
- \_\_\_\_\_, 「칸트 『유작』(Opus postumum)에 대한 이해와 오해」, 『철학연구』 75집, 2006.
- \_\_\_\_\_, 「칸트 『유작』(Opus postumum)의 시발점(Ansatzpunkt)—합본 IV의 23개 ‘초기 낱장문서’ 문제를 중심으로」, 『철학사상』 37호, 2010.
- 최소인, 「칸트의 『유작』에 나타난 절대 관념론의 맹아」, 『서유럽연구』, 1998.

(일차문헌)

- Hegel, *Differenz des Fichteschen und Schellingschen Systems der Philosophie* 1801, GW 4.
- Ders, *Enzyklopädie der philosophischen Wissenschaften im Grundrisse*, GW 20.
- Kant, *De mundi sensibilis atque intelligibilis forma et principiis* (『감성계와 지성계의 형식과 원리들』, 최소인 역, 이제이북스, 2007)
- Ders, *Opus postumum*, hrsg. von der Königlich Preuß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Bd. XXI, Bd. XXII.
- Ders, *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 Bd. V.
- Ders, *Kritik der Urteilskraft*, Bd. V.
- Ders, *Kritik der reinen Vernunft*, hrsg. von Raymund Schmidt, Hamburg, 1971.

(이차문헌)

- Adickes, E., *Kants Opus postumum dargestellt und beurteilt*, Berlin,

1920.

- Edwards, J., "Spinozism, Freedom, and Transcendental Dynamics in Kant's Final System of Transcendental Idealism" In: *The Reception of Kant's Critical Philosophy*, ed. by Sally Sedgwic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 Förster, E., "Introduction" In: *Opus postumum*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 Mathieu, V., *Kants Opus postumum*, Frankfurt am Main, 1989.
- Tuschling, B., "Die Idee des transzendentalen Idealismus im späten Opus potumum" In: *Von Übergang-Untersuchungen zum Spätwerk Immanuel Kants*, 1991.
- Ders., "Intuitiver Verstand, absolute Identität, Idee. Thesen zu Hegels frührer Rezeption der 'Kritik der Urteilskraft'" In: *Hegel und die 'Kritik der Urteilskraft'*, hrsg. von Hans-Friedrich Fulda, Rolf-Peter Horstmann, Klett-Cotta, 1990.
- Wasianski, *Immanuel Kant in seinem letzten Lebensjahren*, Königsberg 1804 In: *Immanuel Kant: sein Leben in Darstellungen von Zeitgenossen*, hrsg. von Felix Gross, Darmstadt, 1993.

ABSTRACT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Kant's  
Transcendental Idealism

Kim, Jae-Ho

In comparison with Hegel's idealism, it is the general view that Kant's transcendental idealism belongs to a philosophy of the finite. However, this interpretation can result from a misunderstanding that confines his idealism too narrowly. The true significance of Kant's transcendental idealism cannot be determined by the critical period, but must be detected from Kant's awareness of issues that comes to his transcendental idealism. Therefore, if his awareness of issues can be found in the critical period as well as in his last endeavor for the correction of philosophical systems, then the true significance of Kant's transcendental idealism can have the full prospect within the whole horizons of those thinking-developments.

**Keywords:** Kant's Transcendental Idealism, Philosophy of the Finite, Philosophy of the Infinite, Spinozism, Kant's Opus Postumum, the Future of Kant's Transcendental Idealism